

6년제 수의과대학과 전망

서 언

수의계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오랜 여망이었던 수의학교육 수업연한 연장은 금년 5월 20일 교육부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교육부 공고 제1996-30호)함으로써 관련 당사자 및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관보 제13316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후 금년 8월 23일 대통령 제15,141호에 의해 확정공포됨으로써 1998년 입학자부터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그 교육과정을 예과 2년, 수의학과 (본과) 4년으로 하기로 교육법 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되었다 (관보 제13394호). 이에 따라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금시지탄의 느낌(?)이 들지만 이로써 우리 수의학 교육이 제 자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를 경하하면서 또한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우리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새로운 세기로 바뀌는 20세기 말의 최근 수년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변화가 거듭되고 있다. 이념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고 경제적 논리가 이를 대체함으로써 바야흐로 국경없는 교역 전쟁이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그 동안 큰 논란이 되어 왔던 우루과이 라운드는 작년 WTO 체제의 출범으로 구체화된 바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수의계에도 피부에 감지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하여질 것은 자명하다. 소위 축산 대국의 무차별한 국내 축산 시장의 공략은 우리 축산 기반을 송두리째 잠식하게 될 아찔한 국면까지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의 강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또 향후 교육시장의 개방이 더욱 확대된다면 수의학 분야라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8년부터 시행될 우리 수의학 교육의 학제 연장과 거기에 담아야 할 교육내용은 보다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수의학의 역사와 시대적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덧붙여 우리 나라의 현대 수의학교육이 걸어온 길을 조명함과 동시에 파생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동안 우리 수의계가 6년제 학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나아가 새로운 수의학교육의 기본 방향과 교과목 편성에 담아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범수의계에 주어진 당면과제를 같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역사적인 6년제 수의학교육을 대비하고자 한다.

수의학의 역사

수의학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척추동물의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광범위하고 정치된 의학적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수의업은 주로 산업동물의 경제적 측면을 제고하는 것에만 강조함으로써 수의학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한 가장 주요한 학문임을

간과한 경향이 있었다. 미국의 유명한 병원인 Mayo clinic을 창설한 사람으로서 수의사이자 의사인 Christopher Graham에 의하면 수의학과 의학은 공존하면서 일반의학 (general medicine)을 발전시켜 왔으며 양자는 서로의 업적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관계를 해오다가 근래 의학과 수의학이 각각 독립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의학은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고 수의학은 의학과 생물학이 마주치는 영역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질병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자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여야 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소아는 일부 이를 가능할 뿐 동물은 이러한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의학은 생의학적(biomedical) 연구에 가장 적절한 학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동물이 저급 식료를 섭취함으로써 생체의 생화학적 과정을 거침에 따라 먹기 쉽고 맛이 있으면서 영양가가 우수한 동물성 단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원시인류일 것이고 따라서 수의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물이 가축화됨에 따라 상당한 수의술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의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바빌로니아의 Eshnunna 법전 (B.C. 1900)이 그 효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소의 제각술이 언급되어 있다. 이집트의 Kakun Papyrus (B.C. 1800)에는 수의개업과 가축 및 어류의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 당시의 수의술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바빌로니아의 유명한 법전인 Hammurabi (B.C. 1700)에 수의개업에 대한 규제사항과 더불어 외과수술에 대한 시술료 및 수의진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발전된 수의술이 존재했음을 추측케한다. 그밖에도 거의 동 시대인 수메리아, 페니키아에서도 수의업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경우 그리스에서 B.C. 500년에 수의술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는데 (Pohl, 1905), 그 뒤에도 Aristotle, Xenophon 등의 저술에서도 당시의 수의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로마시대의 경우 Cato, Columella, Vindicianus 등의 수의술은 로마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세의 암흑시기를 거친 후 르네상스 시대에 회람 로마 수의학과 아랍과 페르시아의 수의학의 재발견을 통한 발전의 진통기를 경험하였다. 근세적 의미의 수의학 교육은 18세기에 유럽에 만연한 우역의 발생에 의해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어 주로 우역을 포함한 다른 동물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762년 불란서 리용의 수의과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것은 우리 수의학의 역사에 주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후 영국, 독일 등 모든 유럽 및 북미의 주요 국가에서 수의과대학은 속속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의 동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나름의 체계를 이루면서 발전되어 왔는데 동양 수의학의 경우 고대 인도 및 중국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시대에 와서의 인도에서는 Asoka왕 (B.C. 4세기)이 제국의 전역에 동물병원을 설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인도에서의 체계화된 수의학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수의학은 주나라 말경 오늘날의 공무원 제도를 나타내는 주례에 수의분과가 있었다는 기록을 참고하면 전국적 규모에서 국가적 차원의 수의술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학의 두 가지의 큰 주류인 황제내경의 원리적 의학 과 장중경의 상한론 등에 나타난 처방론은 모두 수의학에 직접적으로 응용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나라 수의학의 발전과 문제점

우리 나라에서의 고대 수의학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왔다. 중국의 수의학이 우리 나라에 전래된 과정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구려의 승려인 자혜법사가 일본에 건너가 수학을 전파하였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그 시기보다 앞서 중국 수의학이 우리 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생산 기술을 업신여기는 사회풍조에 따라 큰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정종(1399)에 향약제생집성방의 부록인 우의방마의방은 최초의 본격적인 수의학서로 간주되고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우리 나라 수의학 교육은 대한제국 말엽인 1907년 3월 수원농림학교에 1년제의 수의숙성과가 창설된 것이 그 시초이었으나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지되었다가, 1931년 3월 이리농림학교의 수의축산과가 신설되어 중등교육의 수의학교육이 시행되었으며, 고등교육으로 1937년 4월에 수원고등농림학교 (이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의 수의축산과가 개설되어 상급기능의 전문기술인이 양성되게 되었다. 일제시대의 교육이 그런 바와같이 주로 일본인의 입학이 허용되어 1945년까지 겨우 30명의 한국인이 졸업되었을 뿐이었다. 일제시대 우리 수의학의 문제는 위에 열거한 인재양성의 부족과 전문가로서의 활동기회의 박탈뿐 아니라 군국 일본의 전쟁 필요성에 의해 말 중심의 수의학이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국민이 필요한 축종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해방과 더불어 그 동안 군사적으로 주요하게 간주되었던 말의 숫자가 격감하게 되어 수의학적 기여의 공백이 강요되었다. 이와같이 금세기 전반의 암울했던 식민시대는 우리 나라 수의학의 진정한 발전은 도외시되었고 오직 군국 일본의 입장에서 요구된 수의학이 외곡적으로 발전되었을 뿐 세계적인 수의학 발전의 흐름에 동승하지 못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1946년 수원농림전문학교는 수업기간 4년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수의축산학과는 수의학과와 축산학과로 분리되었으며 이듬해인 1947년에 농과대학 수의학부로 승격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의 수의학의 대상 축종은 종래의 말로부터 소, 돼지, 닭 등의 산업동물에로의 변천을 보게 되었으며 특히 해방 후의 교육정책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우리 수의학도 미국 수의학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수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또 수의학적 기여가 크게 필요한 기반 산업의 낙후 등으로 수의학이 마땅히 발전되어야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사회 각 부분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상대적 결핍이 한 동안 수의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수의학교육기관은 꾸준한 확대가 이루어져 1951년 전북대학교에, 1952년 전남대학교에, 1954년 경북대학교에, 1955년 경상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에, 1967년 건국대학교에, 1982년 충남대학교에, 1988년 강원대학교에, 1989년 충북대학교에 수의학과가 각각 설치되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강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의과대학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수의학교육 6년제를 맞아 위의 4개 대학교의 수의학과도 조만간 수의과대학으로 승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의학교육은 그 동안 수많은 역경과 난항을 거듭하여 왔는데, 1962년 3월 정부의 고등교육기구 간소화 방침에 따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축소되었으며 제주대학은 수의학과가 폐쇄되는 비운도 경험하였다. 1974년에 와서는 축산업에 있어서 수의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일각에서의 요청이 비등함에 따라 우리 나라 수의학교육도 6년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국의 8개 농과대학의 수의학과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개교에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정착도 하지 못한 채 1974년과 1975년 2회에 걸쳐 예과과정만 선발한 후 다시 4년제로 환원되었으며 다른 대학에서도 시기는 다르지만 속속 다시 수의학과가 생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과로 입학한 학생들의 기대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날림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의 겪게된 어려움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경험한 바와같이 충분한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또 구성원의 합의가 없이 정책적 또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수반되며 결과적으로 우리 수의학의 발전을 20년 이상 낙후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우리 나라 6년제 수의학교육에 고무받아 일본에서는 1977년에 수의사 시험자격으로 석사과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1983년부터 일관된 6년제 수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 규모에서 본격적 수의학과 6년제 교육 시행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깊이 성찰할 점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향상에 의해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또 산업화의 진전에 의한 인간 소외 현상의 심화 등 여러 이유에 의해 수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저하게 변모하고 있어 선진국형 수의학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도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우리 수의학제가 4년으로 되어 세계 각국의 수의사 동료와의 올바른 대화와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1989년 2월 세계수의사회장인 Prof. Juan F. Figueroa는 문교부장관(정원식)과 대한수의사회장(정창국)에게 한국에서도 국제적 수의사 자질을 갖춘 수의사를 교육시킬 수 있는 연한으로 연장해주길 원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바도 있었다.

미래 사회에 있어 우리 나라 수의학이 기여하여야 할 분야는 넓고도 깊다. 새로운 동물진료 기술의 개발과 가축생산기술의 향상, 각종 동물식품의 위생적 공급, 인수공통전염의 예방, 생명과학연구에 필수적인 실험동물에 관한 연구, 의약품을 포함한 신규물질의 개발 및 평가, 야생 및 수생동물의 보존, 환경보호를 통한 보건 향상 등 헤아릴 수 없는 분야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21세기의 우리 수의학교육이 6년제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의학 6년제 교육에 대한 수의계의 노력

해방 이후 미국의 수의학교육에 영향을 받은 우리 수의학은 학제 연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감하여 왔다. 1974년에 실시된 6년제의 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선배 수의사들의 노력의 일

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6년제 연장은 결국 좌절을 본 셈이지만 우리 수의학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은 사실이다. 그 이후 우리 수의계는 다방면으로 수의학 6년제 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해온 결과 1989년 6월 9일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회장 윤화중)이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응답자 92명 중 91명이 수업연장에 찬성하였으며 찬성자 중 67명 (74%)이 6년제를 그리고 24명(26%)이 5년제를 지지한 결과를 교육부에 건의를 하였다. 이듬해인 1990년 4월 21일에 동 협의회에서는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연한을 6년으로 하자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5월에 수의학 수업연한 연장의 당위성과 세계적 현황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를 담아 교육부에 건의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1년 10월 8일 교육부 (학부)에서 수의학과 수업연장에 따른 문의가 있었으며, 1992년 5월 29일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심의회에 약학대학 및 수의과대학 수업연한 연장방안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게 되었다. 당시에 약학 분야에서도 수의학과 비슷하게 6년제 수업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1992년 교육부지원정책연구과제로 수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수업연한 연장방안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는데 연구진의 위원장으로 교육학을 전공하는 경북대 박종렬 교수가, 위원으로는 수의학 분야에서는 서울대의 양일석교수와 충남대의 윤효인교수 그리고 약학 분야에서는 성균관대 이향후교수와 서울대 최응칠교수가 참여하게 되었다. 당초 수의학과 약학의 연구결과를 함께 묶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약계 내부의 의견 불일치 등 여러 이유 (오늘날은 한약분쟁에 의해 강력하게 6년제를 요구하지만)에 의해 수의학 분야 단독으로 1993년 12월에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수의학 및 교육학 전문가가 공동으로 객관적인 검정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더욱 인정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안을 위시하여 타당성 조사가 담겨져 있었는데 수의학계에서는 조사대상자 126명 중 113명이 회수되어 89.7%의 회송율을 나타내었으며 (장기출장자를 고려하면 회송율은 더욱 높아짐) 회송자 중 90.3%가 6년제로 그리고 5년제가 8.0%이었으며, 수의학계를 제외한 수의업계 및 대학 총장 그리고 관련업계의 결과도 6년제에 대한 선호가 90% 정도로서 압도적으로 6년제 시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우리 나라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5년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6년제로의 검토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그외에도 본 보고서에는 여러 좋은 정보가 수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인자에 의해 6년제 시행이 구체화되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여 왔는데 그 동안 수의교육협의회, 전국수의과대학장회의, 대한수의사회 등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6년제 추진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특히 서울대의 최희인학장을 비롯하여 양일석교수 등이 교육부 및 재정경제원과 꾸준한 접촉을 해 왔다. 범 수의계의 염원이 6년제 학제 연장은 드디어 금년 5월 20일 교육부 공고 제1996-30호에 의해 입법 예고되고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금년 8월 23일에 국무회의가 이를 심의하여 대통령 제15,141호에 의해 확정공포됨으로써 1998년 입학자부터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그 교육과정을 예과 2년, 수의학과 (본과) 4년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들의 긴 장정은 일단 매듭을 보게되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수의학 학제 연장을 어떻게 진정한 우리 수의학의 발전과 연관시키는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크나큰 숙제이다.

수의학 6년제 교육의 기본 방향과 교과목 편성

각국은 고유한 역사적 전통이 있고 또 생활관습이 틀리기 때문에 각국에 가장 적합한 교육의 방향과 교과목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6년제의 시행은 임상수의학에 대한 보다 심도 높고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나라 수의학과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참고하면 구미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 비임상분야의 진출이 숫적으로 더욱 많아 이를 도외시할 수 없다. 특히 6년제를 시행하게 되면 비임상분야에 대한 대학원교육에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 6년제가 실시되면 초기 몇 년에는 입학지원자의 격감 내지는 질적 저하의 우려도 수의계에서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홍보 등)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하는 철학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속성상 모든 분야에 위기는 내재하고 있으며 수의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수의학은 사회의 변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고객의 필요와 기대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수의학 교육은 미래를 잘 예측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여야 될 것이다.

금년 10월 20일 서울대학교에서는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을 “21세기 수의학교육의 발전전략”이라는 제하에서 성대하게 수행하였다고 들었다. 이 심포지움에서 동 대학의 이홍식 교수가 우리 현실을 감안한 6년제 교과과정 편성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어 프로시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수의학 교과과정의 기본원칙은 첫째 앞으로의 수의학 교과과정은 세계화, 국제화, 선진화를 겨냥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둘째 자주적이고 주체성 있는 수의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편일률적으로 구미의 그것을 모방함에 대해 힘주어 경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과과정 편성의 주요성을 부각하였다. 셋째 기존과목의 학점수를 늘리는 교과편성을 지양하라는 주의를 잊지 않았다. 과목이기주의는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담아야 한다고 친절하게 제시하였다. 넷째 이는 무엇보다도 주요한 교과목편성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교과목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암기위주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연구소, 병원, 목장, 기업체, 도축장 등 실무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배양시키자는 것이다. 다시 위의 이교수가 위의 기본방향에 의해 조사한 교과목의 편성은 현행 수의과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이외의 개설 권고 교과목으로 크게 4분야로 나누어, 기초수의학계열에서는 유전학, 의료정보학,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신경해부학, 수의사학, 세포생물학, 의학통계학, 그리고

응용수의학계열로 환경위생학, 환경의학, 수의역학, 동물생태학, 기기분석학, 자연보호론, 동물애호론, 의료경제학이었고, 선택수의학계열로 말의학, 레포츠동물의학, 수산학개론, 해양생물학, 파충류의학, 수서동물의학, 특수동물치료약, 동물행동학, 동물심리학, 동물영양학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임상수의학계열로 집단의료학, 질병관리학, 특수동물학, 안과학, 영상진단학, 수의간호학, 병원경영학, 수의마취학, 피부과학, 안과학, 치과학, 응급수의학, 신경과학 등을 각각 권고하였다. 한편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종배)에 의하면 실제로 수의사의 사회활동에 관한 법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롭게 사회에 나오는 수의사가 법규에 대한 깊은 법리적 해석을 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실무에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수법인 수의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새로운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필자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인데 실제로 현대 사회는 이익단체간의 상호적 의견 조정이라는 측면이 깊기 때문에 우리 수의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률교육에도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년제 교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수의예과에 가능한 많은 수의학 기초과목 내지는 수의학과목을 삽입시키는 것이 수의학 교육의 연장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전의 교양과목을 일률적으로 30% 적용하여야 한 데에 비하여 현재 융통성이 확보되어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겠다. 교과목의 편성은 각 대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또 방대한 구미 선진국의 교과목의 비판적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각 대학의 교무과장 (현재는 선임학과장이 겸무를 하고 있지만)이 수차 만나 논의한 바가 있어 빠른 시간내에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의계에 부과된 당면과제

닭과 달걀의 선후에 대한 논쟁은 유명하여 궤변을 즐기는 사람이 항용 인용하는 것이지만 사회현상은 이와같이 모호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수의학교육이 6년제가 되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수의계의 발전을 보증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어찌면 사회적 여건의 성숙이 수의학 교육연장 효과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수의계에 주어진 당면과제는 무겁고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에 의해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수의학의 특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방역활동에 대한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수의사가 공무원으로 봉직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만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6년제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가 배출될 때 현행처럼 7급으로 근무시킬 때 신규공무원의 인력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며 따라서 정부 기능의 큰 공동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의사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적절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수의국의 설치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제국의 수의 정부조직을 잘 검토하여 본다면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

식품안전본부의 신설에 의해 미국식의 FSIS는 무산된 것 같은 느낌이 진한데 이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동물 및 그 축산물의 유해물질의 분석은 전통적으로 수의학에서 다루고 있고 또 우리 나라의 경우도 가축위생시험소 (이름이 달라진 곳도 있어 아연하고 있지만)에 분석기기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관련 요원의 분석능력도 상당 정도 진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중복 투자되는 것에 대하여 냉정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 스스로 주장하고 설득시키지 않고 감이 떨어지는 시간까지 기다린다고 될 것인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수의 사회에서는 최근 광견병의 입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도 같은 심정으로 수의계의 발전을 위해 그냥 지금까지 방치된 분야가 무엇인가를 찬찬히 살펴보는 데 노력을 아껴서는 안될 줄로 안다. 새로운 학제 졸업생의 병역 문제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방당국에 필요한 인원은 중위로 임관을 시켜야 할 것이며 군에서 소화하지 않는 인력은 공중수익 또는 보건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 수의계의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밖에 무수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겠으나 우리 모두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